お会いできてうれしく思います。

日本図書館協会 植松貞夫理事長はじめ会員の皆さま、そしてご参加の内外のご来賓の皆さま、韓国図書館協会会長のイ・ジヌです。私は公共図書館の現場で25年間勤務した司書として、本年7月に協会長に就任しました。

愛媛県松山市で開かれる 2025 全国図書館大会に祝辞を述べ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たいへん光栄に存じます。

日本図書館協会は世界で3番目に設立されたという長い歴史を持つ団体で、日本の図書館界のみならず国際的に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日本図書館協会と韓国図書館協会は1999年に交流と協力に関する協約を結んで以来、代表団の訪問をはじめとして、さまざまな交流を続けてきました。私もまた、京畿道富川市で図書館司書として勤務していた2006年から、神奈川県川崎市立図書館と富川市立図書館の関係者との交流を通じて、相互訪問とセミナー等を開催しました。当時の図書館の懸案に対する共同の関心と議論、川崎の図書館ともの会の方々の活動に、大いに助けられ、深い感動を覚えました。

今年,韓国図書館協会は創立80周年を迎えました。日本図書館協会より歴史は短いですが,80周年の重みを相当に大きく感じています。図書館界の諸先輩が作り上げてきた図書館協会の歴史,その中にこめられた使命感の厚みをいかにして広げていくかに,大きな悩みがあります。特に来年は釜山で世界図書館情報大会(WLIC)が開かれます。これを契機として国際的な交流の幅をより一層広げていこうと思います。日本と中国など,近隣の国々の協会との交流がその出発点となることを希望します。韓国でも今年10月22日から24日まで京畿道で全国図書館大会を開催します。韓国図書館協会創立80周年の記念行事も同時に開かれます。韓国図書館界の歩みと現況,悩みについて,共に関心を持っていただけるとありがたく存じます。韓国図書館協会も今回の松山市全国図書館大会の懸案と方向について深い関心を持ち,心を寄せ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日本図書館協会の第 111 回全国図書館協会が成功裡に開催されることと、図書館界の 持続的な発展を祈願し、改めて全国図書館大会の開催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진우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반갑습니다.

일본도서관협회 우에마츠 사다오 이사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내외 귀 빈 여러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이진우입니다. 저는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25년간 근무한 사서 로, 올해 7월에 협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에서 열리는 2025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본도서관협회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역사 깊은 단체로, 일본 도서관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서관협회와 한국도서관협회는 1999년에 교류와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은 이래, 대표단 방문을 비롯해 다양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저 역시 경기도 부천시에서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2006년부터,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도서관과 부천시도서관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방문과 세미나 등을 개최했었습니다. 당시 도서관 현안에대한 공동의 관심과 논의, 가와사키시 도서관친구 모임분들의 활동에 많은 배움과 깊은 감동을받았습니다.

올해 한국도서관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본 도서관협회보다는 역사가 짧지만, 80 주년이 주는 무게를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 도서관인들이 만들어온 도서관협회의역사, 그 안에 담긴 사명감의 두께를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부산에서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가 열립니다. 이 계기를 통해 국제적인 교류의 폭을 보

다 더 넓혀내고자 합니다. 일본과 중국 등 가까운 나라 협회와의 교류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에서도 올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에서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도서 관협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한국 도서관계의 발자취와 현황, 고민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도 이번 마쓰야마시 전국도서관대회의 현안과 방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일본도서관협회의 제111회 전국도서관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도서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전국도서관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